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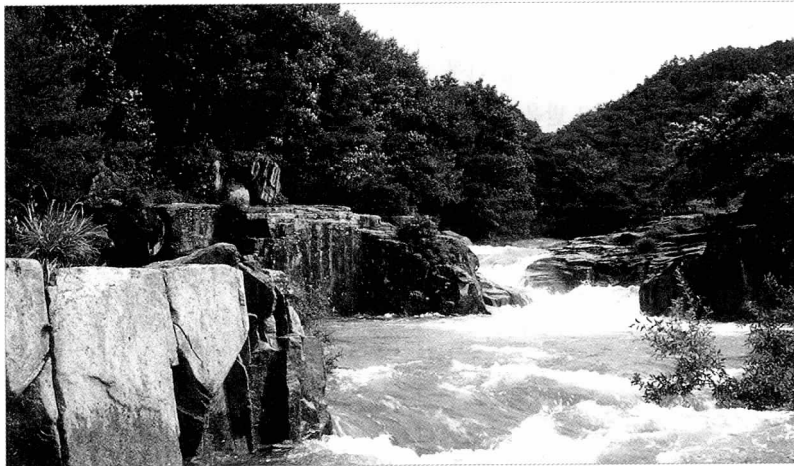
산성(山性)국민

히 세 옥(許世旭) 고려대학교수

어쩌다가 올 가을엔 나들이가 많았다. 육로는 물론 바다로 하늘로 두루 살필 수 있어, 나에게서는 다채로운 가을이었다.

그래서 이번 가을은 내게 파란 물결로 남고, 빨간 단풍으로도 남았다. 긴 긴 여로의 한구석이라도 놓칠세라 동그란 창가의 그 자리를 꼬박 지키면서 떠돌았다.

그런데 눈을 감고 한참 마음을 가라앉히면 눈꺼풀에 펼쳐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점점이 널려 있는 산이요, 곤곤(滾滾)히 물결치는 산맥



들이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이 태어난 조국은 몽땅 산뿐이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하늘에서 내려다본 국토는 몽땅 산이었고 부산에서 여수까지 선상에서 바라본 남해 일원도 몽땅 산이었고, 서울에서 설악까지 달리는 차창으로 하루 종일 들어온 것도 몽땅 산이었다.

멀리서 볼수록 우리들이 사는 마을은 산 속에 묻혀 있었다. 아니, 보이는 것은 모두 산이었다. 통계로는 우리 국토의 삼분의 이쯤이 산이었는데, 어림도 없는 말 같았다. 그냥 몽땅 산뿐인데 말이다. 거제도 앞바다를 둥둥 떠가면서 바라보는 우리의 내륙이 그랬고,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우리가 뚫고 가는 우리의 허리가 더욱 그랬다.

정말 아름다웠다. 벽옥의 비녀가 아니면 사뿐히 벗어 놓은 버선이었다. 파란 비단 치마가 아니거들랑 훨훨 나부끼는 두루마기 그 널찍한 웃고름이 아닐까? 다소곳이 햇볕을 쬐는 고양이로도, 지금막 귀가 중인 주인을 맞으러 쫓아가는 삼살개로도 보였다.

정말 웅장했다. 일망무진의 만경창파를 달려오는 천군만마의 기세요, 천길 만길의 협곡을 비류직하하는 폭포의 형상 그것이었다. 더구나 가을 산은 훨훨 타오르는 요원(燎原)의 불길이요, 가을의 만학천봉은 우수수 물러가는 낙엽의 회오리바람이었다. 높은 빗부리 기암절벽을 감돌아 벼락처럼 뛰어드는 호랑이의 눈부신 수염 같기도 하고, 밤새도록 준령을 넘어와선 지금 늘어지게 낮잠이 든 곰의 허리 같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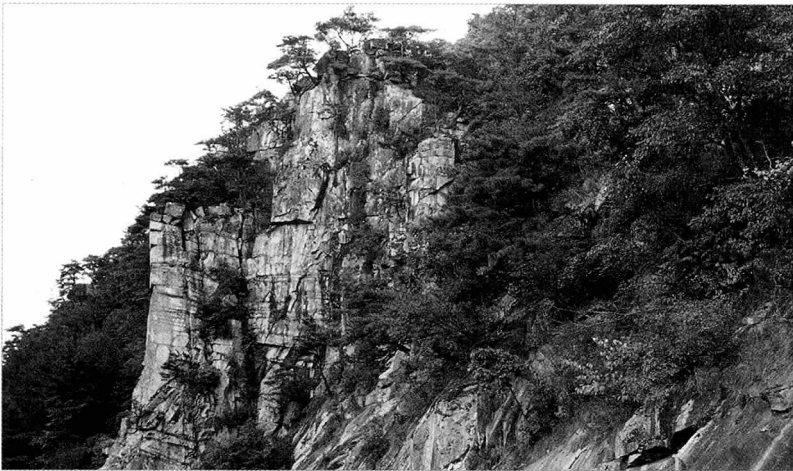
정말 첩첩하게 깊었다. 해가 머리맡을 비추는데도 침침한 계곡, 그 속에서 사철이 바뀌면서 잎이 지고 꽃이 피지만 산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 속에서 갈래갈래 구렁들이 물결치지만 주봉은 험벗고 우두커니 서 있다. 그 속에서 금은보화를 값았음에도 그 가장자리엔 역새풀이 휘휘하다.

산의 경계와 덕성이 어찌 이에 그치랴! 어느덧 산은 우리의 마음씨요, 우리의 살결이 되었는데……. 저 절대의 환경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산을 닳고 있는 것이다. 저 갈맷빛 산등성이가 내 마음에 들어서 살고, 저 풋풋한 황토 냄새가 우리 살 속에 스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엄청난 사실을 늘 잊게 마련이다. 우리가 사는 곳은 들이요, 우리가 때를 이루는 곳은 도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육체를 기탁하는 곳은 시멘트 벽돌 속이요, 우리들의 생명이 보호를 받는 곳은 엑스레이가 번쩍거리는 병원인 줄 알고 있다.

저 높이높은 하늘에서 우리들의 도시나 마을을 내려다보면 우리들의 마을은 느티나무에 매미처럼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토록 뽀뽀하고 살아 온 것이다.



나는 산을 보면 다정하다. 그들은 비록 장엄할지라도, 그들은 생동하게 일어났다가 순간적으로 사그라지는 물결이어라. 내가 소년적 알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밀려오는 파도를 내 온몸으로 막으면 내 키를 넘고 내 온몸을 삼킬 듯 솟구치던 그 물결 말이다. 그래서 그 물결을 안고 물싸움을 벌이고 싶은 충동 때문에 산은 더욱 다정했다.

산을 보면 나와 우리를 보는 듯하다. 그들은 내외처럼 두 몸을 비비



고 이마를 짚거나 팔짱을 낀다. 등교하는 꼬마처럼 어깨동무를 하거나, 아예 혼자 저만큼 떨어져서 외롭게 세상을 살기도 한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웅기종기 앉아 있는 야산이나 저 창공을 뚫고 축축(矗矗)이 늘어선 뒷부리, 그리고 서로 포옹하는 구름, 아무렇게나 덩글고 있는 능선들은 시장에 준비한 우리들 백성의 모습들이다.

산은 백성처럼 말이 없다. 역수처럼 비가 피부으면 죽은 듯 섰다가 그것이 지나면 맑은 얼굴로 서고, 자욱한 구름과 안개가 오락가락해도 그것들이 비기면 의젓하게 서 있을 뿐, 도시 치근덕거리거나 서들지 않는다.

집안을 다스리다 지친 사람이나 나라를 거느리다 생각이 막힌 사람은 저 갈맷빛 산을 볼지어다. 저기에 우리 백성이 사는 질서나 가족이 화목하는 윤리가 보인다.

다소곳이 머리를 숙인 구름이 있는가 하면, 어느새 등뼈를 세우고 하늘을 겨냥하여 양갈지게 고향을 치는 뒷부리가 있다. 자그마한 밥상이 모여 오손도손 도란거리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저 쪽 문밖을 서성이는 가출아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7할이 산이요, 우리가 딛고 사는 전부의 흙이 모두 모두 산에서 온 것이다. 이 속에서 사는 우리는 무엇보다 산성(山性)일 거다. ●